

여름 배추·무 폭등?...가격 안정 비상

7~10월 출하 배추 재배 5.5% 줄어 7월 출하량 전년비 14.6% 감소 비축물량·할당관세 적용 등 확대

올 여름 출하를 앞둔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한 채소류 가격 안정에 나섰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관측 6월호 엽근채소'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7~10월 출하될 여름배추의 재배(의향)면적은 4956ha로 전년(5242ha) 대비 286ha(5.5%) 감소했다.

배추 농가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재배의 어려움, 선충 발생으로 인한 휴경, 연작 피해 등의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농가들이 다른 품목 재배로의 전환 의향이 늘어난 결과다.

올해 여름배추 생산량 역시 35만5299 t으로 전년(36만5961 t)보다 2.9% 감소할 것으로 KREI는 봤다.

현재 배추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1년 전보다 각각 4.4%, 6.4% 증가한 노지배추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6월 여름배추 출하량

이 전년 대비 10.2% 감소한 데 이어 오는 7월에도 여름배추 출하량이 14.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추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이달 수확하는 노지 봄배추 비축분으로 부족한 배추 공급량을 채운다는 계획이지만, KREI는 이를 감안해도 7월 배추 출하량은 전년 동월보다 8.9~9.2%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배추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울어름 배추 도매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름 무 역시 재배(의향)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여름 무 재배(의향)면적은 2637ha로 전년(2732ha) 대비 3.5% 감소했다.

지난해 9~10월 여름 무 출하기에 무 가격이 하락하는 등 상품성 하락과 병해 확산 우려에 따른 것으로, 재배(의향)면적 감소에 따라 예상 생산량 역시 전년에 견줘 2.4% 줄어든 24만 4333 t으로 전망됐다.

게다가 올해 6월과 7월 무 출하량이 전년에 견줘 각각 9.3%, 6.8%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무(상품) 가격은 지난달 기준 1만 6563원으로 전년 동기과 평년보다 각각 4.7%, 55.9%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오는 7월에도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도매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올 여름 배추, 무 등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자, 정부는 배추와 무 등 채소류의 가격 안정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해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할당관세 신규적용 등의 방안을 마련해 사전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봄배추 1만 t과 봄무 5000 t을 미리 비축해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울어름에 풀 예정이다.

또 농협 계약재배를 통해 여름배추 6700 t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배추 재배면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관령, 안동 등 고랭지 채소 주산지의 농협 출하조정시설을 통해 오는 9월까지 배추 약정물량 6200 t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여름배추의 부족한 생산량을 메워 급격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7월부터 무 수입전량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양배추는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이달 말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귀여운 수박과 작은 양파가 주는 웃픈 현실

이상기후로 과실·채소류 품질 하락...생산자도 소비자도 곤혹

농산물이란 어울이든 큰 것에 마음이 가고, 맛도 좋다는 것은 진리인 듯하다. 10kg에 달하는 수박을 수확해 다디단 속살을 입안 가득 머금었을 때, 지름 9cm 이상의 양파를 캐 들어보이며 자부심을 드러내 본 농부들이라면 여기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돌아가신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생전에 수박 같은 과일은 물론이고 감자 같은 여름을 살 때 하나를 사더라도 제일 크고 싼 것을 사려고 자랑하듯 이야기하곤 했다. 작은 것 여러 개(마리) 보다 크고 싼 것 하나가 모양새가 나고 맛도 더 좋다는 인생의 경험을 전하면서 말이다.



대를 하진 않았지만, 예전과 달리 수확량이 조금인 데다 크기마저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거짓말 조금 보태자면 양도 크기도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모종 구매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확량이었다. 다만 겨울을 잘 참아내고 견디어낸 만큼, 작지만 단단하고 맛도 진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고 조금은 위안이 됐다.

얼마 전 수박을 좋아하는 딸을 위해 수박을 사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를 모호한 말을 들었다. 수박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이전이고 사과 한 알이 5000원에 달할 정도로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터라,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것을 골랐다. 큰 수박 땅에 담아 수박을 들고 집으로 오던 길에 한 초등학생이 "어머 귀여워라, 강아지처럼 생겼네"하는 것이다. 수박을 보고 귀엽다고 표현한 점과 강아지에 비유한다는 것이 특이했고 한편으로 놀랐다. 내 생각엔 그 아이는 수박의 작은 크기를 보고 귀엽다고 느꼈을 것이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떠올라 귀여운 강아지 같다고 했을 성 싶다.

실은 요즘 수박은 크다 작다 다 익었고 맛도 좋고, 수박의 속살과 당도를 비파과 당도 선별기 대신 AI 선별 시스템으로 선별해 출하하는 정도니 더 말을 해 무엇 하겠는가.

채소류에 속하는 수박의 등급판정 때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수박의 크기 구분은 제일 큰 것 4L, 11kg이며 차례대로 1kg씩 줄어 1L(8~9kg), 중간 것인 M은 7~8kg, S는 6~7kg, 3S는 5.0kg 미만으로 점점 더 작아진다. 하지만 2.5kg과 1.3kg 사이의 조물수박 같은 '미니수박'도 팔리고 있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아담한 크기의 애플수박도 인기가 높아 크기 구분은 실효성이 없어진 지도 이미 오래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밭에 심은 양파를 수확하면서 서운함과 서글픔이 교차하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 수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

무게로 크기를 따지는 대부분 과실이나 채소류와는 달리 유독 마늘과 양파는 무게에 더해 1구의 지름(cm)을 등급판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는다. 과실의 환경 기준(cm)으로 크기를 구분하는 블루베리, 무게와 1개의 지름을 같이 사용하는 감귤과 매실의 예외가 있지만 말이다.

이 기준을 적용해 수확한 양파를 살펴보니 2L(9cm 이상)·M(6~8cm)인 것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이 S(6cm 이하)였고 3cm에 못 미치는 것도 허다했다. 농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탓이겠지만 크기만 볼 때 이러한 실망스러운 점수를 받으니 서글프기까지 했다.

요즘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과실이나 채소류의 품질이 좋지 않다. 이에 따라 가격이 치솟아 농가는 물론 소비자도 곤혹스럽다. 작은 크기에도 비싸게 살 수박에 없어서다. 크기에 따라 맛이 차이 나는 시대는 아닐지언정 큰 것이 좋고 맛있다는 통념이 여전히 만큼 크고 맛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는 농부의 책무와 그에 따른 자부심을 품고 농사에 임해야 하는 농부의 마음가짐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그리고 귀여운 수박과 조그마한 양파에 '웃픈'(뭔가 웃을 만하지만, 한편으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혹은 오히려 울고 싶은 상황) 것은 나쁜 일일까. /bigkim@kwangju.co.kr

농협중앙회 지역조합원 소통 2024 전남·광주본부 현장경영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5일 전남본부 대강당에서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2024 전남·광주본부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별 현장경영은, 매년 각 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조합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전남·광주본부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지역 내 조합장 150여명과 함께 농업·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했다.

또 이번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강호동 회장은 "전국의 조합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축협 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현장경영의 목표"라며 "이번 현장경영을 계기로 농협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024 전남·광주본부 현장경영' 자리에서 관내 조합장들과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또 "경제사업 활성화에 역점을 다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윤리경영 실천에도 힘써달라"며 "중앙회는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전남을 시작으로 충남, 강

원, 서울, 전북, 충북, 경기, 경북, 경남 순으로 총 9차례에 걸쳐 현장경영을 진행할 예정이며, 조합장들이 제시한 의견은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농정 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T, 중동시장 'K-FOOD 앰배서더' 발대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두바이 오피스 타워에서 온·오프라인 'K-FOOD 앰배서더 2024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aT는 중동 지역의 높은 외국인 거주 비율을 반영해 UAE, 카타르, 이집트, 레바논, 예멘, 요르단

등 다양한 국적의 인플루언서 63인을 앰배서더로 선정했다.

이들은 음식 전문가, 요리사, 블로거, 소셜 미디어 크리에이터 등 다채로운 이력을 가져 알파·MZ 세대가 좋아하는 한국식품 등 K-Food 알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매달 포스팅할 계획이다.

aT는 매달 '이달의 앰배서더'를 선정하고,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한 앰배서더는 '그랜드 앰배서더'로 선정하는 등 앰배서더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권오엽 aT 수출이사는 "다국적 인플루언서를 통해 중동 지역 내 한국농식품의 생생한 경험담이 널리 전파된다면, 긍정적인 인식은 물론 소비 저변 확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세계식량가격 석 달째 상승세...곡물 가격 6.3% 올라

세계식량가격이 석 달째 상승세를 보였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0.4로 전월보다 0.9% 올랐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해 1월 117.7에서 2월

117.4로 하락했으나 3월 119.0, 4월 119.3, 지난 달 120.4로 세달 연속 상승했다. 품목군별로 보면 지난달 곡물 가격지수는 118.7로, 전월 대비 6.3% 상승했다. 곡물 중에서는 밀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풍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